

모로코의 농업현황*

박성진·유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아과·명지대 아랍지역학과)

1. 모로코 일반 연왕

1.1. 개요

모로코 왕국(Kingdom of Morocco, 이하 모로코)은 아프리카 북서단에 위치하는 국가이다. 면적은 71만 850km²로 서부 사하라 지역 25만 2,120 km²을 포함하여 한반도의 약 3.2배에 달한다. 북동쪽 지중해 연안, 남서쪽 대서양 연안과 이어져 있으며 남쪽으로는 사하라 사막과 맞닿아 있다. 해안선은 비교적 굴곡이 적은 편이며 알제리, 모리타니, 스페인과 국경을 접한다. 모로코는 북부, 중부, 남부의 기후 양상이 다르며 각각 지중해성, 대륙성, 사막성 기후를 가지고 있다. 계절은 크게 우기와 건기로 구분되며, 우기는 온난다습(평균 15℃)하고, 건기는 고온 건조(평균 28℃)하다. 리프 및 아틀라스 산맥에서는 연평균 1,500mm의 강수량이 내리는 점을 이용하여 관개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도는 라바트(Rabat)이며 2012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외에 모로코의 주요 도시로는 카사블랑카(Casablanca), 페스(Fez), 마라케시(Marrakesh), 탕헤르(Tanger), 케니트라(Kenitra)등이 있다. 민족 구성은 아랍인-베르베르인이 인구의 99.1%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유대인, 흑인, 유럽인들이다. 언어는 아랍어를 공용어로 사용

* (psjpower3@hufs.ac.kr), (tot0367@naver.com).

하지만 프랑스어도 통용된다. 인구는 약 3,400만 명이며 인구의 98.7%가 수니파(Sunni) 이슬람교도이고, 나머지는 기독교, 유태교 등을 믿는다. 모로코의 정부 형태는 입헌 군주제이지만, 국왕은 3권을 초월한다. 정부 형태로는 상·하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표 1. 모로코 국가정보

국명	모로코 왕국
위치	아프리카 북서단(북위 23~36도, 서경 13~17도)
면적	71만 850km ² (서부사하라 지역 25만 2,120km ² 포함/한반도의 3.2배)
기후	북부(지중해성), 중부(대륙성), 남부(사막성)
수도	라바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2012년)
인구	3,480만 명(2017년 6월)
주요 도시	카사블랑카(335만 명), 라바트&살레(188만 명), 페스(107만 명), 마라케시(95만 명), 탕제(79만 명), 케니트라(42만 명)
민족	아랍인-베르베르인(99.1%), 유대인(0.2%), 기타(0.7%)
언어	공용어(아랍어, 베르베르어), 상용어(프랑스어)
시차	GMT+0(우리나라보다 9시간 늦음). 단, 서머타임 적용 시 8시간 늦음.
종교	이슬람교(수니파) 98.7%, 기독교 1.1%, 유태교 0.2%
건국(독립)일	1956년 3월 2일(프랑스로부터 독립) 독립기념일은 독립선언일인 1955년 11월 18일로 지정
정부형태	입헌군주제
국가원수(실권자)	국왕 모하메드 6세(Mohammed VI, 1999년 7월 30일 즉위)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그림 1. 모로코 지도



자료: 네이버 지도(<https://www.naver.com/>).

1.2. 정치 및 사회 동향

모로코의 정부 형태는 국왕제이며 현 국왕은 1999년에 즉위한 모하메드 6세이다. 모로코의 헌법에 따르면 국왕이 따로 후계자를 정해두지 않으면 장자 상속이 된다. 모로코의 국왕은 헌법상 종교 최고 지도자이자 국가 원수, 즉 이슬람교와 국헌의 수호자이다. 모로코의 정치 체제가 입헌군주제이지만 국왕은 의회를 해산하고 군사력을 사용하는 등 입법, 행정, 사법 3권을 초월한 절대 권력을 갖는다.

그러나 2011년 2월, 튀니지 민주화 운동의 영향으로 모로코 내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가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2011년 3월에 행정부 및 입법부 기능 강화와 사법권 독립을 골자로 하는 정치 개혁안을 발표했으며, 그 해 7월에 국민투표를 통해 98% 이상의 압도적 찬성으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2011년 9월과 2012년 1월에 왕정의 개혁이 헌법 개정 이후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반정부 시위가 카사블랑카에서 재발했으나 현 정부가 다방면으로 정치적 변화를 모색해 반정부 시위 행위는 잠잠해진 상태이다. 최근 정치 현안으로서는 크게 테러,¹⁾ 서부 사하라 문제²⁾ 등이 있다.

1.3. 경제연망

모로코의 경제 성장률은 2010년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과 둔화를 반복하는 추세이다. 인구 성장률은 1990년 이후 꾸준히 상승세이다. 하지만 2016년 기준 노동인구는 전체 인구의 35%에 그치고 있다. 이에 실업률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증가추세였고, 2015년에는 수치가 다소 하락하였다. 모로코 고등계획위원회는 2016년 1분기 초 경제성장률을 1.3%로 하향조정 하였는데 이는 2015~16년 발생한 가뭄으로 인해 농산물 생산이 저조하여 경제활동이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2014년 이후 모로코 국영 인광석기업(OCP)의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인광석 사업의 호조세가 수출업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건설업과 자동차 분야 또한 수출액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다만, 2016년 기준 모로코 수출액은 전년 대비 2.9%, 수입액은 9.6% 증가하여, 무역적자가 전년 대비 30억 900만 달러 증가했다.

1) 2007년, 2011년에 모로코에서 알카에다가 배후에 있는 테러가 발생함. 이후 테러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IS의 여성대원 모집책인 모로코 여성 '사미라 예로우'가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항에서 체포되었음.

2) 서부 사하라는 스페인의 자치령이었으나 모로코가 1974년부터 실질적으로 통치함. 그러나 현지 주민들은 폴리사리오(Polisario) 전선을 조직해 지속적인 독립운동을 하고 있음. 주민투표를 통해 독립여부를 결정하자는 유엔의 중재안이 수용되며 내전이 일단락되었지만, 주민투표가 거듭 연기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원유 및 에너지, 곡류부문 수입액이 감소했지만 그 외 부문의 수입이 월등히 증가하여 무역적자의 원인이 되었다. 모로코는 내수경제 활성화와 이른바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통해 건설업, 풍력, 화력, 태양열, 수력 등의 에너지 산업 등으로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무역적자, 재정수지적자, 실업률, 거시경제 불안정 등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모로코의 주요 경제지표는 <표 2>와 같다.

표 2. 모로코의 주요 경제 지표

연간지표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GDP 성장률	%	3.7	4.5	2.4	4.4	-
농업성장률	%	6.1	14.0	2.2	12.8	-
명목GDP(달러)	백만달러	98,266.31	106,826	109,881	100,593	101,445
실질GDP(달러)	백만달러	101,060	105,643	108,338	113,222	114,468
1인당 GDP	달러 USD	2,904.75	3,111.76	3,154.51	2,847.29	2,832.43
소비자물가상승률	%	1.28	1.89	0.44	1.56	1.64
실업률	%	9.05	9.21	9.70	9.70	-
이자율	%	5.25	5.25	5.25	5.25	5.25
환율	-	8.63	8.41	8.41	9.76	9.81
수출실적	백만달러	32,338.62	32,614.40	35,827.50	33,292.32	34,261.14
수입실적	백만달러	47,013.40	47,424.82	49,467.70	41,220.16	45,197.87
무역수지	백만달러	-14,674.78	-14,810.42	-13,640.20	-7,927.84	-10,936.74
대외부채	백만달러	33,835.73	39,263.30	42,809.48	42,988.61	-
외환보유고	백만달러	17,390.40	19,051.00	20,526.51	23,005.18	25,353.27
투자유치액(FDI)	백만달러	2,841.95	3,360.91	3,525.63	3,252.91	2,318.28
해외투자액(ODI)	백만달러	406.12	331.96	436.21	648.99	-

자료: KOTRA 해외시장 뉴스(<http://news.kotra.or.kr>).

1.3.1. 교역연망

(1) 시장 규모

모로코는 석유 등 부존자원이 적어 1인당 GDP가 다른 중동 국가와 비교하면 낮은 편이지만 약 3,48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잠재력 있는 소비시장이다. 연간 수입 규모는 400억 달러를 상회해 아프리카 대륙에서 남아공, 이집트, 나이지리아, 알제리에 이어 5위의 수입시장이다.

(2) 시장 특성

모로코는 전통적인 수출국가에서 대부분의 재화를 수입하고 있다. 프랑스를 비롯하여 스페인, 미국(곡물), 중국, 사우디(원유), 이탈리아 등 6개국이 모로코 총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값싼 공산품으로 인해 중국은 2014년 이래 모로코 수입 국가 중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모로코는 자본재부터 주류와 식품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상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개방된 시장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지만 수입 관세가 높은 관계로 가격 경쟁력이 현지 진출의 가장 큰 관건이다.

1.3.2. 무역 협정 체결 현황

모로코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협정을 맺고 있다. 주요 협정은 다음과 같다

(1) 자유무역협정

- **모로코-EU 자유무역협정** : 유럽 연합은 모로코의 제1의 교역 상대국이다. 대외 거래 의존도는 약 75%를 상회할 만큼 모로코 경제 전반이 유럽 경기에 영향을 받는다. 2000년 3월 1일부터 12년 동안 모로코-EU 간에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었다. 협정은 공산품을 5가지 품목군으로 분류하였다. 원자재, 자본재, 부품, 국내제조 공산품, 국외제조 공산품이 이에 해당하며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해 모로코산 소형자동차, 고무-플라스틱, 섬유제품과 같은 공산품에 대한 관세는 수년에 걸쳐 10%씩 인하했고 원자재나 부품, 모로코에서 생산할 수 없는 공산품의 관세율 인하폭은 그보다 높았다.
- **아가딜 협정** : 아가딜 협정은 모로코, 튀니지, 이집트, 요르단 등 지중해의 4개국이 체결하여 2006년 7월 6일에 발효됐다. 발효시점부터 모든 농산물과 공산품의 관세가 철폐되었고 수량제한 등 비관세장벽도 제거하여 4개국 간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였다.
- **모로코-미국 자유무역협정** : 2004년 6월 15일에 맺어져 2006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FTA 체결 이후 정보통신, 섬유의류, 기계, 화학, 건설장비 등 미국의 주력 수출품목들이 모로코로 대량 수출되고 있다.
- **모로코-터키 자유무역협정** : 2004년 4월 7일 앙카라에서 맺어졌으며 2015년에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관세가 철폐되었다. 터키는 섬유산업부문에서 강세이다

로 터키산 섬유 및 의류 제품이 주로 모로코로 수출되고 있다.

(2) 안국과의 협정

한국과 모로코는 1962년 첫 수교 이후 1976년 5월에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한국 모로코 교역 규모는 2012년부터 확대되기 시작하였지만, 이후 확대와 축소를 반복해 왔다. 특히 2016년 에볼라 사태로 양국의 교역액이 감소하고, 모로코 프로젝트 관련한 한국 기업들이 프로젝트를 종료하여 2017년 5월 기준 전년대비 대 모로코 수출이 대폭 하락세를 보였다.

표 3. 한국-모로코 관계

외교관계 수립	1962년 7월 6일
체결 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협정(1976년) • 경제기술협력협정(1976년) • 문화, 과학 협력협정(1977, 1979년) • 체육협력의정서(1990년) • 한·모로코 청소년·체육교류약정 체결(1990년) • 사증면제협정(1993년) • 이종과세방지협정(2000년) • 투자보장협정(2001년) • 정보통신협력협정(2001년) • 해외봉사단 교환각서(2001년) • 항공협정(2003년) • 관광협력협정(2006년) • 정보화 MOU 체결(2009년) • 부산시-카사블랑카 자매도시협정(2011년) • 한-모로코 4대강사업 기술협력협정(2012년) • 문화교류 시행계획서 조인(2016년)
교역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5억 4,400만 달러(2016년) / 수입: 6,800만 달러(2016년) • 수출: 1억 2,900만 달러(2017년 5월) / 수입: 6,800만 달러(2017년 5월)

자료: KOTRA 해외시장 뉴스(<http://news.kotra.or.kr>).

2. 농업 개요

모로코는 아틀라스 산맥(Atlas Mts.) 및 리프 산맥(Rif Mts.), 사하라 사막(Sahara Des.) 및 대서양(Atlantic Ocean), 지중해(Mediterranean Sea)를 포함하는 지리적으로 다채로운 나라이다. 농업은 경제활동의 중추이고 전체 노동인구의 44%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³⁾ 그러나 모로코는 가뭄과 토양 퇴화 문제에 직면해있다. 이에 정부는 기후

3) 외교부(<http://www.mofa.go.kr>).

변화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농업용 해수 담수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관개 인프라를 강화하고 가뭄에 잘 견디는 작물 경작을 장려함으로써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토양 유기물의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축 분뇨를 통하여 토양 비옥도를 높이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 또한 크고 작은 농장들 사이의 두드러진 격차도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을 위한 과제로 남아있다.

2.1. 농업 현황

모로코는 고온건조한 기후조건 때문에 대부분의 농산물 생산량을 강우량에 의존한다. 모로코의 강수량은 변동 폭이 상당히 커 최근 몇 년 동안은 극한으로 곡물 공급과 모로코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2016년 1월 29일 모로코 정부는 불규칙적인 강수량에 대비하여 농업부문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즉 가뭄대응계획에 5억 2,000만 달러를 투입했다.

모로코의 농업은 국내 총생산의 17%를 차지한다. 정부가 지난 40년 동안 우선적으로 농업부문에 투자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 이에 92개의 댐이 세워져 120만 헥타르의 관개시설을 확충할 수 있었다. 주요 관개지역은 북서쪽의 루코코스(Rue Cocos), 아틀라스 산맥 북쪽 타들라(Atlas Mountains, Tadla), 아가달(Agadir) 지역의 수스마사(Souss-Massa), 아틀라스 산맥 남쪽의 와르자자트(Ouarzazate) 및 타필러렛(Tafilalet) 등이 있다.

농업 생산물은 기상 조건에 따라 다르며 대부분의 작물은 자급자족 농가에 의해 재배되지만 현대화된 농업기술로 수출용 식량을 생산하기도 한다. 주요 생산 농작물로는 밀, 보리, 맥박, 감귤류, 올리브 및 올리브 오일, 무화과 등이 있다. 수출품목에는 채소, 감귤류, 올리브오일 및 와인이 포함된다.

모로코 일부는 2016년 11월 중순까지 가을철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많아지면서 수분이 보충되어 수확량 전망이 개선되었다. 현재 모로코 농경지의 15% 가량만이 관개수로 농업이 가능한 반면에 나머지 85%는 자연 강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겨울에 재배되는 총 면적은 511만 헥타르로 전년의 360만 헥타르와 차이가 있다. 1인당 곡물 공급량은 1960년대 이래 정기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주로 밀과 보리를 생산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곡물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육류 및 어류 공급량은 제한적이다. 모로코는 일정량의 밀가루가 과일 생산되어 이웃 국가로 수출하기도 한다.

2.2. 주요 작물

모로코의 주요 작물은 밀, 감귤류 등이다. 모로코는 1인당 소비량 기준으로 최대 밀 소비 국가 중 하나로, 밀 생산량이 다른 작물에 비해 많지만 국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 감귤류는 모로코의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모로코는 감귤류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농산물 무역수지 개선, 외화 수입 증대를 꾀하고 있다.

표 4. 모로코의 주요 식품 식량수급표(2013년 기준)

단위: 천 톤

구분	국내 공급				국내 유통					
	국내총공급량	수입량	재고변화	수출량	식용	가공용	사료용	종자용	폐기	기타
밀 및 밀 제품	9,318	2,762	-180	198	5,932	0	2,000	299	738	350
보리	2,909	186	0	0	1,330	19	1,000	127	232	200
옥수수	1,866	1,782	0	34	1,192	0	450	5	145	74
감자	1,958	79	0	49	1,603	0	50	108	198	0
사탕수수	620	0	0	0	0	620	0	0	0	0
원료당	1,329	954	32	54	1,296	1	0	0	0	32
콩류	293	10	25	2	159	0	78	16	15	25
올리브	1,095	0	-14	73	22	815	0	0	160	98
콩기름	380	457	0	86	200	0	0	0	0	180
올리브유	134	10	15	14	119	0	0	0	0	15
토마토	882	48	0	460	778	0	0	0	103	0
양파	926	0	0	4	879	0	0	0	46	0
채소	3,012	24	0	449	2,703	0	1	0	309	0
감귤류	916	15	0	523	845	0	0	0	71	0
바나나	334	32	0	0	318	0	0	0	17	0
사과	563	17	0	37	533	0	0	0	30	0
대추야자	132	43	0	18	95	0	30	0	7	0
포도제품 (와인제외)	434	6	0	8	372	58	0	0	4	0
과일	679	26	0	68	631	0	0	0	48	0
쇠고기	265	12	0	0	265	0	0	0	0	0
양고기 및 염소고기	144	0	0	0	144	0	0	0	0	0
가금육	686	4	0	2	686	0	0	0	0	0
알류	277	0	0	1	220	0	0	40	17	0
우유 (버터제외)	2,498	178	0	90	1,805	0	575	0	118	0

주: FAO STAT은 모로코의 식량 식품수급과 관련하여 2013년까지의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음.
 자료: FAO STAT(<http://www.fao.org/faostat>).

2.2.1. 밀 (wheat)

모로코의 최대 생산 농산물이자 수입 농산물은 밀이다. 밀의 공급량은 2012년 이후 증가세이다. 2016년 기준, 모로코의 총 곡물 재배면적(일반 밀, 듀럼 밀, 및 보리)이 320만 헥타르이며 이 중 밀 재배 면적은 210만 헥타르이다. 총 곡물 재배면적의 65% 이상이 밀 재배 면적에 해당하지만, 이는 전년대비 40% 감소한 수치이며 최근 15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수질 및 토양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곡물 재배 지역을 과수나무 재배지역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펼친 것에 기인한다.

모로코의 1인당 밀 소비량은 연간 173kg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지난 10년 동안 인구 증가에 따른 빵 제품의 다양화로 소비 진작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밀은 모로코에서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필수품이다. 모로코 정부는 주도적으로 밀을 낮은 가격에 제공하게 하는 대신 비용 차이를 공급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을 고안했다. 이는 이른바 국가 밀가루로 알려진 일반 밀을 저소득층에게 지속적으로 보조하기 위함이다. 이로 인해 식생활에 있어서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밀 소비는 차별받지 않게 된다.

2.2.2. 감귤류(citrus)

감귤류 역시 모로코의 주요 생산작물이다. 감귤류는 특히 모로코의 주요 외화수입 원(연 3억 5,000만 달러)이며,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농산물로 정부가 감귤류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18년까지 감귤류와 감귤류 주스 생산량을 각각 290만 톤, 20만 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모로코 농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감귤류 재배지에 대한 보조금(support payments)을 2007년 1헥타르당 778달러에서, 2011년 1,197달러로 확대하였다. 또한 신규 감귤류 재배 농가에 관개 장비 구입과 우물 파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USDA 2016b).

정부의 이러한 노력으로 모로코 내 감귤류 재배 지역(planted area)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8년 이후 모로코의 오렌지(Oranges) 재배지역은 꾸준히 확대되었는데, 2008년 4만 1,539헥타르에서 2016년 5만 7,040헥타르로 약 38% 확대되었다. 감귤/만다린(Tangerines/Mandarins)의 재배지역도 2008년 4만 3,668헥타르에서 2016년 6만 3,420헥타르로 약 45% 확대되었다. 모로코 정부의 관개시설 개선 노력과 감귤류 재배 농가의 확대로, 앞으로도 감귤류 생산량과 재배지역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모로코 감귤류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등 EU 국가, 러시아, 미국 등이다. EU 국가와 러시아의 오렌지 수요 증가와 더불어, 모로코산 오렌지와 경

쟁하는 스페인산 오렌지가 폭우로 품질이 저하되며 모로코산 오렌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기준 모로코의 감귤/만다린을 3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미국이었다. 그러나 2016년 1월, 미국은 지중해과실파리(Medfly) 유충이 발견되자 모로코산 감귤/만다린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2016년 10월, 모로코의 수출 검역 강화로 미국의 모로코산 감귤/만다린 수입이 재개되었지만, 미국의 모로코산 감귤/만다린 수입액은 전년대비 23% 감소하였다.

2.3. 모로코 식문화와 식품 소비 특징

모로코 식단은 지중해식이며 곡물, 과일 및 채소를 중요하게 섭취한다. 식이요법은 도시 가구 및 고소득 그룹에 따라 다양화되고 있다. 동물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육류의 소비는 제한적이다. 한편 즉시 먹고 처리할 수 있는 음식과 외식문화는 도시 지역에서 점차 흔하게 나타나고 이에 따라 설탕과 지방이 많은 식품의 소비가 늘고 있다. 신체 활동 수준의 감소와 함께 나타난 이러한 변화로 성인 인구의 과체중 및 비만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유아 및 어린 아이에게 수유를 하는 관행은 변화하고 있다. 6개월까지는 모유 수유율이 떨어지고, 젖병 수유는 보편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유의 국내 유통량이 높은 편이다.

웰빙 열풍에 따라서 모로코에도 유기농식품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2016년 모로코에서 판매된 유기농 식품(포장·가공, 이하 유기농 식품) 판매 규모는 총 7,690만 모로코 디르함(약 810 달러)으로 전년대비 약 8.8%, 2011년 대비 약 55.5% 증가했다. 모로코 유기농 식품 시장의 주요 품목은 모로코 주식인 빵류이며, 빵 품목의 총 판매액은 2016년 기준 모로코 유기농식품 총 판매액의 약 60% 이상을 차지했다.

모로코에서 유통되는 유기농식품들은 80% 이상이 현대식 식료품점에서 판매된다. 이 중 대형 마트 및 슈퍼마켓이 각 54.5%, 26.7%를 차지한다. 그 외 전통시장 및 전통 방식 식료품점에서 판매되는 유기농 식품은 약 17%에 그치고 있다. 한편 모로코는 자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식품 원재료 중 약 15% 가량 가공하여 수출하고 있다. 주요 원재료로는 채소(가지, 당근, 토마토, 애호박), 향신료(로즈마리, 백리향, 고수, 커민, 재스민)등이 있다. 2016년 기준 모로코에서 유기농 식품 원재료는 총 8만 톤이 생산되었으며, 이 중 1만 2,000톤의 원재료가 모로코에서 가공 후 수출되었다.

표 5. 유기농 식품 판매규모

단위: 백만 모로코 디르함

식품 종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유기농 빵류	31.7	35.2	37.4	40.7	43.8	47.4
유기농 과자류	11.8	12.3	13.0	13.6	14.1	14.9
유기농 쿠키, 스낵바, 과일스낵	0.8	1.0	4.5	5.6	6.6	7.9
유기농 쌀, 면류	3.2	3.3	3.5	3.7	3.9	4.2
유기농 시리얼	2.0	2.1	2.2	2.3	2.4	2.5
총계	49.5	53.9	60.7	65.8	70.7	76.9

자료: 장도혜(2017).

3. 농업 정책

3.1. 모로코 농업의 문제점⁴⁾

모로코에는 농업부문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구조, 생산성, 보조금, 경제성 측면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모로코는 제한된 수자원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가뭄에 취약하다. 모로코 일부 지역에만 관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모로코 전체 농경지의 약 85%가 자연 강우에만 의존하고 있다. 또한 농장의 70%가 5헥타르보다 적은 면적이다. 모로코 전체 인구의 46%가 농촌 인구이며 이 중 66%가 빈곤하다. 또한 농촌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 중 75%는 황폐해진 땅에서 거주한다. 경작지의 질이 저하된 주된 이유로는 가뭄의 장기화 등이 있다. 사막화⁵⁾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원상태로 돌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농업 지원 정책이 필요하나 현실은 미비한 실정이다. 은행의 농업 프로젝트 자금 조달 프로젝트에 참여율이 저조하여 혜택을 보는 농민은 18%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모로코의 농업 보조금 부문 또한 다른 국가가 전체 보조금의 30~70%인데 비하여 8%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모로코의 시골 지역은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농촌 빈곤층을 위한 농촌 금융서비스도 부재하다. 더욱이 여성

4) 모로코 문화통신부(ministry of culture and communication)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함.

(<http://www.maroc.ma/en/content/green-morocco-plan>).

5) 사막화는 기존 사막 개체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토양이 침식하는 과정임. 주로 반 건조-습지 토양지대에 무리한 개발을 하여 생태계가 극도로 약해져 발생하게 된다. 즉 사막화의 요인으로는 농업활동과 사회 인프라의 확장, 기후변화, 벌목 관련 활동 등이 있음.

의 농업 참여가 제한적이며, 고령화된 농장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농가들은 자유시장 하의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생업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기 어렵다.

또한 모로코의 농업은 농업용 투입재의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예를 들어 모로코의 헥타르당 비료 사용량은 프랑스보다 4배가량 적고 모로코의 기계화 정도는 스페인보다 약 11배 낮다. 농업 구조, 보조금, 생산성 부문의 실정이 이러한 한편 조직의 짜임새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모로코의 농업 부문은 관련 조직이 체계화되지 않아 농민과 전문가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없는 편이다. 따라서 부적절한 경영 구조를 가진 농장일지라도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3.2. 그린 모로코 계획(Green Morocco Plan, GMP)

3.2.1. GMP 목표 및 기대효과

모로코는 자국 농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8년부터 그린 모로코(GMP) 정책으로 위기를 타개하려 하고 있다. 먼저 향후 10~15년 동안 농업을 성장의 지렛대로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 이에 대한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 2020년까지 농업으로부터 1,000억 디르함(105억 2,631만 달러)의 GDP를 추가 창출하여,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2배로 늘린다.⁶⁾
- 민간 및 공공 부문의 투자를 통해 100만 개의 농업 관련 중소기업을 설립하고, 농업 부문에서 1억 1,5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 빈곤에 허덕이는 빈농촌의 소득향상을 2~3배 촉진하여 300만 농촌 주민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 감귤류, 올리브, 과일 및 채소 등 모로코가 경쟁력 있는 각 분야의 연간수출액을 440억 디르함(약 46억 3,159만 달러)까지 늘린다.
- 약 1,506개의 프로젝트로 연간 100억 디르함(약 10억 5,263만 달러)의 신규 투자를 시작한다.

3.2.2. 세부 사업 내용⁷⁾

모로코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가뭄으로 인한 수자원 부족 및 사막화이다. 따라서 모로코 정부는 GMP의 목표 달성을 위해 특히 기후와 관련된 리스크를

6) GMP를 처음 시행한 2008년 농업이 모로코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3%였으나, 2016년 12.9%로 오히려 하락함 (data.worldbank.org).

7) Mohamed(2014)를 참고하여 작성함.

줄이는 데 힘쓰고 있다. 정부는 가뭄에 대한 취약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관개용수 절약프로그램(National Irrigation Water Saving Program), 팀 프로젝트(Team Project) 등 국가 주도의 농업 생산성 증대 사업을 운영하며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을 꾀하고 있다.

(1) 관개용수절약프로그램(National Irrigation Water Saving Program)

GMP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는 관개용수절약프로그램(National Irrigation Water Saving Program)이다. 모로코 관개 지역의 77%는 물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지표관개(surface irrigation)에 해당한다. 정부는 관개용수절약프로그램을 통해 2020년까지 약 55만 헥타르의 지표관개 지역을 점적관개(drip irrigation) 지역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 농가에 점적관개에 필요한 장비를 보조하거나, 적합한 종자를 보급하는 방법을 통해 점적관개 지역을 넓히고 있다. 2012년까지 약 33만 3,000헥타르가 점적관개지역으로 전환되었으며,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2020년까지 약 70만 헥타르의 농경지가 점적관개 시설을 갖추게 된다.

(2) 팀 프로젝트(Team Project)

정부는 상기 목표를 달성한 후 농업 조직 모델로서 팀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것을 다음 목표로 한다. 팀 프로젝트는 소규모 농장들이 조직의 부재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실제로 모로코는 소규모 농업인이 70%로 대부분 농장관리 기술이 부족하며 생산 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한 재정적 수단도 없다. 게다가 농업관련 산업은 이러한 양상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므로 소규모 농장이 출하하는 상품 수량과 품질이 불안정한 문제가 뒤따른다. 따라서 팀 프로젝트를 구축하여 농가와 기업이 협력하여 파트너십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팀 프로젝트 참가 기업은 소규모 농가가 필요한 정보와 제도를 안내하는 중간자통합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팀 프로젝트의 기참여기업으로는 설탕부문의 CONSUMAR사, 낙농부문의 COPAG사, 양고기부문의 ANOC사 등이 있다.

(3) 기타 세부 사업

이 외에도 모로코는 자국 농업 발전에 난관이 되는 가뭄 및 수자원 부족 문제를 위해 가뭄에 강한 콩류·유지종자 재배지역을 확대하고, 토양 및 수질 보호를 위해 곡물 재배지역을 올리브 등 과수나무 재배지역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모로코 농업부는 가뭄으로부터 소규모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2011년부터 가뭄에 대한 재해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 맺음말

모로코는 다른 중동 지역에 비하여 석유 부존량이 적어 1인당 GDP가 다소 낮은 경향이 있으나 약 3,48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잠재력 있는 소비시장이다. 다만, 많은 인구와 넓은 영토에도 불구하고 사막화, 대농장과 소규모 농장 간 격차, 잦은 가뭄과 농업 진흥을 위한 제도가 미비한 문제 등으로 인해서 자국 작물 생산량으로만 국내 농작물 수요를 맞출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수입이 필연적으로 늘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와 외화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GDP는 계속 줄어들고 경기가 침체되어 실업률은 증가세에 머무르는 등 거시경제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모로코 정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린 모로코 사업을 통해 제도적 도움이 필요한 농가에 투입될 기업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침식되고 있는 땅에서도 자랄 수 있는 작물을 개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관개시설 개발, 농지 개간, 각종 인프라 건설, 농업 조직 모델 프로젝트 등 장기적인 측면에서 모로코 농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모로코 농업부가 지향하는 대로 농산물의 생산량 증대와 품질 개선측면에 집중한다면 농업 진흥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장도혜. 2017. 08. 16. “모로코 유기농 식품 시장동향.” 「해외시장뉴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Mohamed Badraoui. 2014. *The Green Morocco Plan: An Innovative Strategy of Agricultural Development*.
- Mohamed Fardaoussi. 2016. *MOROCCO GRAING AND FEED ANNUAL 2016 ANNUAL REPORT*.
- USDA FAS. 2016a. *Morocco: Citrus Annual*. USDA.
- _____. 2016b. *Morocco: Grain and Feed Annual*. USDA.

참고사이트

- 네이버지도 (<https://www.naver.com/>)
- 모로코 문화통신부 (<http://www.maroc.ma/en/content/green-morocco-plan>).
- 세계은행 (<http://www.worldbank.org/>)
- FAO 통계 (<http://www.fao.org/faostat/en/>)
- FAO GIEWS (<http://www.fao.org/giews/countrybrief/country.jsp?code=MAR>)
- FAO NUTRITION COUNTRY PROFILES (http://www.fao.org/ag/agn/nutrition/mar_en.stm)
-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news.kotra.or.kr/kotranews/index.do>)
- MOROCCO PROFILE (<http://www.fao.org/ag/agp/agpc/doc/counprof/morocco/morocco.htm>)
- OECD 데이터 (<https://data.oecd.org/>)
- USDA (<https://www.usda.gov/>)
- World bank (<https://data.worldbank.org/>)